

#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민생·저출생·경제재생 '3생'

## 대한상의, 국민 1만2000명 설문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인기 공약

우리 국민들이 이달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기대하는 '3대 정책' 분야로 민생·저출생·경제 재생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국민 소통 플랫폼 '소플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을 진행해 1만2000명의 응답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뒤 여야 각 6000명을 대상으로 인기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는 33.6%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저출생 문제 해결(22.7%)과 경제 재생(기업 지원 12.3%·지역발전 12.3%)이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의 5대 인기 공약 중에는 민생 분야가 4개를 차지했다. 예금자 보호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어 청년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 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전화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요

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꼽혔다.

부문별 인기 공약으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저출생), 중소기업 채용인재 인센티브 지급(기업), 지역 공공병원 스마트병원으로 육성(지역균형),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복지), 플라스틱 사용 감량(기후위기) 등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민생 관련 공약인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1위 공약으로 선정됐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서는 모두 1위인 반면 40대는 2위, 50대는 19위로 세대별 인식이 엇갈렸다. 이어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등 저출생 관련 공약 2건이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등 민생 공약 2건도 4위와 5위에 각각 올랐다.

부문별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기업),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지역발전),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지역균형),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복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기후위기) 등이 1순위로 꼽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 전남도, 연간 1000명 바이오 주요인력 양성

### 산·학·연·관 토론회

전남도가 연간 1000명의 바이오 우수인력을 양성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전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바이오 우수 인력 양성 산·학·연·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움이 될 우수 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9개 기관으로 이뤄진 전남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와 전남대·조선대 등 광주·전남 7개 대학 등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이날 국내외 바이오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관·대학을 연계한 바이오 협력체계 구

축 ▲차별화된 교육 기반시설 확충 ▲국내외의 현장 실무형 바이오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간 1000명의 바이오 우수인력을 양성,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당장, 전남바이오진흥원 내 교육전담팀을 꾸리고 올해부터 지방비 60억 원을 투입해 시험·실습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첨단 교육장비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 운영, 기관 간 협력 등을 전담키로 했다. 전남도는 전남대병원과 녹십자사 등 화순 백신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의약품 제조 실무교육을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 진행하면서 지난 10년간 240여명의 인력을 양성해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도, 올해부터 취약계층 연탄 구입비 지원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구입비를 지원한다.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연탄 생산 공장인 '남선연탄'의 폐업으로 연탄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내 유일한 연탄 생산 공장인 남선연탄의 폐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연탄 공급이 이뤄지는 데 따른 가격 상승을 감안,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연탄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남선연탄은 수요 급감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70년 역사를 마감하고 지난 1일 폐업했다.

광주·전남지역 연탄 사용 가구는 3196가구(전남 2436가구·광주 760가구)로, 이들이 사용하는

연탄은 연간 300만 장에 이른다. 하지만 지역 내 생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인접한 전주 지역 공장에서 구입할 경우 연탄 한 장 당 운송비와 인건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취약층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일정 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 설명회를 진행한 뒤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8만 1000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8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회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뉴스가치 선별과 사실 확인, 균형에 철저해야”

### 제68회 신문의날 기념식...주요 언론단체 신뢰 회복·혁신 다짐

독립신문 장간 정신을 기리고 미디어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신문의 날(4월 7일)을 앞두고 주요 언론단체가 신뢰 회복과 혁신을 다짐했다.

주승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은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8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뉴스가치 선별과 사실 확인, 기본적 균형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디지

털 미디어의 다변화로 “악성 소문이나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인포데믹스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신문이 사회의 대표 지성으로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언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다짐하는 자리”라며 “독자 여러분들의 품격과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다양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청 한국신문협회 회장은 “신문 없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정보가 범람하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신문의 사명과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스 콘텐츠가 인공지능(AI) 학습 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관련해 “좋은 콘텐츠가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때 AI 혁명도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기술기업과 뉴스 미디어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 장애인 1인당 연 35만원 평생교육 지원

### 교육부 지원사업 선정...우수이용자 최대 70만원 지급, 5월부터 모집

광주시는 “교육부 공모사업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는 5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6200만원을 확보

했으며, 여기에 시비를 더해 총 사업비 8800만원을 들여 자치구별로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50명씩 총 25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5월부터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단,

올해 시민 대상으로 선정한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선정결과와 6월 중 신청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개별통지한다. 선정된 장애인은 이용권 카드(NH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을 35만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광주시는 평생학습 우수이용자에 대해서는 35만원권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현 광주시 교육정책관은 “장애인 학습자와 일반시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풍수 · 사주

###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종합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 2024 고소득 추천 목록

<b>포포나무</b>	제릭스 빅걸	선물라워×셀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선발된 최고 크기의 포포, 최대 과중 800g
	리만스 달라이트	프로리픽×셀노리스 품종의 교배를 통해 육성된 품종, 달콤한 향에 뛰어난 품질을 자랑
	마리아스 조이	최대과중 631~704g, 년중 수확량 우수 유망 과수 학자가 지칭한 최고 맛있는 포포
<b>사과</b>	신품종부사 후지사과	인따기와 반사필름을 깔지 않아도 통서남북 색상이 잘나고 저장성이 우수하며 신맛은 적고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b>감</b>	감풍, 원추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수퍼 단감
	태추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대봉중에 맛이 뛰어난 식재를 많이 합니다.
<b>업나무</b>	민업나무 가지없는 업나무	가지 없는 민업나무 가지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b>두릅</b>	민두릅 참두릅	가지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사과,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4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 해 드립니다.

## 휴경지 노는 땅 상담해 드립니다.

도목상담 010-3121-7676  
문의전화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25  
농협 703-02-497271(예금주 정준화)

## 갑을농원

## 펜션 급매매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가능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 010-3666-6301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당 회사는 2024년 3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4년 04월 01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국진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로 11, 2층 206호(화정동, 우성아파트상가)  
청산인 박소연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북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서 222-8171
	· 북 525-3761	· 신 222-8171	· 오 222-8171
	· 양 571-7658	· 오 266-7801	
	· 동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동 225-6001	· 동 222-9054	
	· 동 222-8171		
남구	· 남 673-6836	· 백 651-1833	
	· 북 673-6836	· 송 675-6605	
	· 진 671-7276		
서구	· 광 382-5788	· 상 372-2352	
	· 서 369-1625	· 윤 376-7153	
	· 치 376-6511	· 동 603-0311	
	· 화 369-1625		
광산구	· 남 952-1687	· 월 959-1920	
	· 청 973-2900	· 하 955-0451	
	· 광 944-0444		